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부활 대축일
제33권 18호(다해) 2013.3.31

[묵상]



그리스도
의 부활
<조반니
벨리니,
14c,
베를린
국립미술관>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무덤을 막았던 돌은 치워지고
아마포와 예수님의 얼굴을 찔던 수건,
죽음의 표징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원치 않으셨던,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십자가의 길과 죽음의 표징들.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생명이신 아버지의 뜻을
자유롭게 따르는 삶
이것이 저희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고생하신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란 사실을,
그러나
그 끝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깨닫게 해주소서. - 框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매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교회의 사명: 하느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아버지로부터 나와 아버지를 향하는 말씀

90). 요한 성인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적인 역설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한편으로 그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요한 1,18; 참조: 1요한 4,12) 고 말합니다. 우리의 표상, 관념, 말들은 결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무한하신 실재를 정의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더 크신 하느님(Deus semper maior)으로 머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말씀이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4)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께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요한 1,18) 하느님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요한 1,14)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은총과 진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사됩니다. (요한 1,17 참조).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요한 복음사가는 서문에서, 말씀께서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것에서 시작하여 사람이 되시는 것과 우리의 인성을 지니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가시는 것까지를 관상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영원히 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요한 13,3; 16,28; 17,8.10 참조),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대해 '알려 주시는' 분으로 (요한 1,18 참조) 나타나십니다.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듯이 아드님은 "아버지의 계시자" 이십니다. 말하자면, 나자렛의 예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느님의 "주석자" 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십니다." (콜로 1,15). 여기에서, 주님 말씀의 효력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나게 하듯이", 하느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나에게 헛되지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사 55,10-1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분께로 되돌아간 최종적이고 유효한 말씀이시며,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완전하게 실현하십니다.

세상에 희망의 "로고스" 를 선포함

91).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땅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 주셨습니다. (묵시 21,5 참조).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 계시의 수신자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선포자로 참여시키십니다. <◆계속>

부활대축일
낮 미사

오늘 세례성사를 받은 새 영세자들과
본당 전체 교우들을 위한
교중 미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10,34-37-43

화답송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 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잡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4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왔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궁계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 음

요한(John) 20,1-9

영성제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입당	169
봉헌	167
성체	306, 162
파견	170

부드럽고 따뜻한 믿음

부모가 자녀에게 '애야, 난 널 믿는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을 믿어.'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있기에,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분석을 훌쩍 뛰어 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 판단에 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 차원을 내포하면서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지엔 따뜻함이 물씬 묻어납니다. 부드럽고 활기차고 생명에 넘친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밝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믿음도 바로 이 차원의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아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함에 빠져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론 너무 쉽게 부활을 생각하며 믿음 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보고 믿었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도망가고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심한 좌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의 그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고, 감싸 안고, 도닥거려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희망이 샘솟고, 위안과 평화의 힘이 온몸을 감싸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풀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학 계산하듯 똑 떨어지는 셈법을 들이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

관적으로, 온몸을 통해 알아듣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알아듣는 이 믿음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어리석음의 소치도 아니고 광신적인 맹목적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깊이 깊은 곳을 건드리는 체험입니다.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는 알아들음이 일어나는 차원이고, 인간을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차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와 비애를 묵도하면서도 그속에 함몰되어 버리지 않고, 그 모두를 끌어안고 솟구쳐 오르는 놀라운 비상이 일어나는 차원입니다. 하여 인간이 참으로 겸손해지고 순박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제자가 보여준 이 믿음의 차원을 우리도 일궈내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비범하고 특출난 사람만이 뒹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소박하기 짝이 없는 서민들이 가장 잘 가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 그 텅 빈 영혼 위에 새로운 희망이, 새 생명의 기운이, 새 위로의 숨결

이, 눈처럼 내려 앉아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나 아름다운 서민들은 그 위로와 생명의 기운을 온몸으로 감지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여 참으로 부활의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 예수회

너, 봄

어떤 것의 '첫'이라는 것. 누군가의 '첫'이라는 것.

모든 것의 '첫'이 된다는 것.

지금 막, 그 '처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예수 부활대축일) 전례봉사

이번 주	성야미사	학생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남성철 베네딕도	주일학교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유현자 안나	..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5독서자 제7독서자	송현식 바오로 서용숙 에스텔	..	이희경 크리스티나
서 간	황지영 안젤라	..	제물봉헌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히느님의 자비주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레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月月月 月月月 알렐루야, 알렐루야 月月月 月月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  
 Happy Easter! Alleluia.
 ~~~~~

~~~~~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본당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부활절 Egg Hunting

- 일시 : 오늘 부활대축일 학생미사후 오전 10시30분부터
- 장소 : 축구장 잔디
- 대상 : 유치부~6학년
- 방식 : 성경구절이 담긴 플라스틱 달걀을 찾아내어 대형판에 성경구절을 퍼즐 맞추듯 붙입니다.

◆ 어르신들께 부활선물 전달

예수님 부활을 더욱 기쁘고 뜻있게 보내기 위해 본당의 어르신들과 이웃 노인아파트(마리코파와 카슨)에 부활계란, 떡, 과일, 샌드위치 등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 본당신부님, 수녀님, 사목회 총회장, 임원들과 함께 전달합니다. 준비에 도움을 준 사목회 사회복지분과위와 빈첸시오회, 레지오 단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달일시 : 부활대축일 미사후

◆ 부활축제 본당 엠마우스

- 일정 : 4월1일(월)~4일(목) 오후 5시까지. 사무실 휴무.
- 4월3일(수요일) 저녁미사가 없습니다.

◆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4월7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단원들이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는 장엄한 예절입니다. 각단원은 물론 협조단원들도 꼭 참석해주십시오.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꾸리아 단장 ☎(310)408-1443

◆ 새 영세자 축하합니다. ◆

◆ 세례식과 축하식

- 오늘 부활대축일 세례식에서 새 영세자가 18명 탄생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새영세자 : 이견우 유스티노, 이제욱 로사리아, 박성경 비비안나, 양원석 다니엘, 이정주 스텔라, 장인석 요셉, 김정아 데레사, 윤성진 안드레아, 이재호 펠릭스, 서재원 요한, 원진혁 요셉, 강도형 마태오, 손은정 세라피나, 김효진 스텔라, 성필영 필립보, 이민선 마리아, 아시우 다니엘, 김서연 클라라
- 축하식 : 미사후 친교장

◆ 미주지역 부산교구 사제단 연수

- 일정 : 4월8일(월)~ 12일(금)
- 장소 : 애리조나 피닉스 김골롬바 성당
- 본당 신부님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백삼위 골프 4월 토너먼트

- 일정 : 4월13일(토) 오전 9시
- 장소 :레이크우드 골프클럽
- 문의 : 유석영 레오 골프회장 ☎(310)997-5388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성물부에 새로운 성물이 많이 준비됐습니다. 부활절에 세례성사를 받을 형제자매들은 물론 친지들에게 선물할 아이템이 많으니 한번쯤 둘러주세요. 축성받은 성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 2013 FIAT장학금 프로그램 신청

- 신청마감 : 5월31일
- 대상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
- 본당신부 및 교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3월31일(부활대축일) : 전신자와 육개장 나눔 (PV2반 봉사)  
\* 주일학교(4학년 타코)
- 4월7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주일학교(3학년 첼판볶음 파스타)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 <p>교무금</p>             | <p>김병태 김상규 김윤진 김정엽 노찬술 박상준<br/>                 박완철 신순철 안민수 안재만 오신재 이근태<br/>                 이미경 이상규 이인석 이재우 이효세 익 명<br/>                 임 순 임한나 조혜정 지경수 최기호 최영신<br/>                 최진수 하양숙 이크리스</p> | <p>성전헌금</p>                         | <p>김정엽 노찬술 박상준 박완철 신순철 안민수<br/>                 안재만 이근태 이상규 이인석 이효세 임 순<br/>                 임한나 조혜정 지경수 최기호 최영신 최진수<br/>                 하양숙 이크리스</p> |
| <p>합계 : \$2,560</p>    |                                                                                                                                                                                                         | <p>합계 : \$2,825</p>                 |                                                                                                                                                        |
| <p>주일미사헌금: \$2,859</p> |                                                                                                                                                                                                         | <p>감사헌금 : 김대우 김정엽 이석제 &amp; 김화경</p> |                                                                                                                                                        |

##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대회 시상 “축하합니다.”  
지난 2월부터 3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쓰기 시작한 신약성경쓰기 경연대회가 24일로 마감되고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 제목 : 마태오 복음
- 시상 : 오늘 부활대축일 학생미사중 14명에게 시상
- 수상명단 : 크리스티나 박(3), 안젤리나 박(3), 박세진(5), 제임스 장(5), 다이에나 칼란타(5), 이인수(5), 조이스 리(5), 어거스틴 안(6), 김벌리 고(7), 황재원(7), 저스틴 장(7), 나일 민(8), 브라이언 모(8), 김승미(10)

◆ 백삼위 주일학교 앙상블 부활절 미사 연주  
주일학교 앙상블(음악교사 : 진영선 크리스티나)이 창단후 처음 맞는 부활절 미사에 SOEL찬양밴드와 함께 미사곡을 연주합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Deposit \$40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LA 한국교육원 주최 한국학교 교사 연수

- 일시 : 4월2일~4월25일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
- 참가대상 : 한국학교 교사, 한국어 교사직 또는 한글교육에 관심있는 분
- 교육내용 :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교재비 \$30)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문의 : 한국학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 남가주 소식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 유해 공경예식

- 일시 : 4월19일(금) 오후 7시30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주임신부 김해원 가브리엘)
- 문의 : 프란치스코성당 사무실 ☎(310)324-8159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 및 봉헌 갱신미사

- 일시 : 4월8일(월) 오후 7시
- 대상 : 전신자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지도신부)
- 장소 : LA 성바실 한인천주교회 본당
- 준비물 : 목주, 성가책
- 주관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평의회
- 문의 : 주배석 비오 ☎(818)571-8438

## 구인

Boba Loca 에서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 위치 : 22501 Crenshaw Bl. Torrance ☎(310)257-9033

##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              |     |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                                              |
|-----------------------|-----|--------------------------|----------------------------------------------|
| 차 장                   |     |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                                              |
| 차 장                   |     |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  | 1   | 이순자 비비안나<br>213-675-0498 |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br>4/20(토) 오전 7시 엠마오대체 |
|                       | 2   | 김찬구 요한<br>701-6343       |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br>4/13(토) 오후 7시        |
|                       | 3   | 박진경 클라라<br>871-7460      | 박진경 클라라 871-7460<br>4/19(금) 오후 8시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  | 1   | 이진향 아녜스<br>989-0366      | 박인식 토마스 989-0366<br>4/14(주일) 오후 5시           |
|                       | 2   | 유선영 클라라<br>424-241-5988  | 이철우 야고보 533-8478<br>4/12(금) 오후 6시            |
|                       | 3   | 신경희 클라라<br>424-903-5051  |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br>4/19(금) 오전 10시30분 성당    |
| 토런스 남<br>이희경<br>크리스티나 | 1   | 오창애 안나<br>974-2857       | 엄영숙 마리아 974-2857<br>4/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
|                       | 2   | 박정람 마르시아<br>634-6923     | 박희자 마리아 213-718-9262<br>4/11(목) 오전 11시 성당    |
|                       | 3   | 전하현 마리아<br>213-550-6653  |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br>4/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
| 토런스 북<br>최미영<br>클라라   | 1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br>4/13(토) 팝스프링         |
|                       | 2   | 1반과 같음                   | 1반과 같음                                       |
| 하버 카슨<br>이정자<br>아그네스  | 1/2 | 주영애 켈마<br>818-640-3656   | 주영애 켈마 818-640-3656<br>4/28(주일) 야외반모임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   | 1   | 남경희 베네딕타<br>384-3289     | 유현화 리디아 541-4305<br>4/12(금) 오후 7시            |
|                       | 2   | 금유미 크레센시아<br>482-9108    |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77-7063    |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8                           |
|                       | 4   | 이귀란 아녜스<br>617-3568      | 도영옥 수산나 617-3568<br>4/9(화) 오전 10시30분 성당      |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부활대축일 Egg Hunting | 주일학교 |
|-------------------|------|

## 다음주 단체모임

|             |       |
|-------------|-------|
| 구역장 / 반장 회의 | 오후 1시 |
|-------------|-------|

##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분들, 그리고 복녘땅 갈라진 형제들에게 주님 부활의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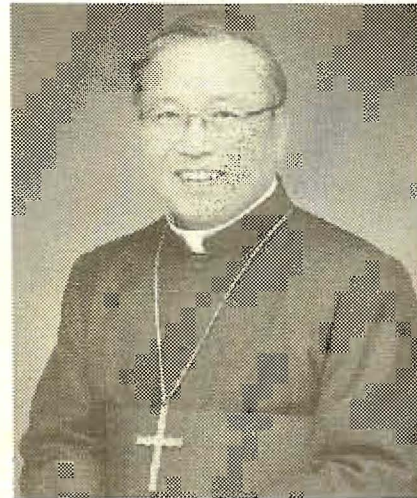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로 무죄 선언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거저 얻은 것

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1코린 15,20-22 참조) 따라서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인간과 세상의 희망이며 미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며,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부활을 향한 사순 시기 여정 중에 우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뒤를 이어, 새 교황 프란치스코를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교회의 최고 목자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교황님께서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서, 청빈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본받아 우리 교회를 사랑과 일치, 진리와 희망, 빛과 기쁨을 가져오는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절실합니다. 평화가 이 땅에서 이뤄지도록, 도구로 쓰일 신앙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곳곳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분쟁이 계속 되고, 물질만능주의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생명경시 풍조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북한의 위협으로 완전한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어려움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뒷전에 둔 채 정쟁에 빠져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고 타협하여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염수정 대주교

공존의 길을 찾아주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온 마음으로 믿고, 그 부활을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세상의 악과 고통 속에서도 굳은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생활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사참례, 기도와 성경 묵상처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재능, 재물을 이웃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기꺼이 도와주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충실히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도처에서 주님 부활의 숨결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령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2천 년 전에 일어난 과거형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체험한다면 모든 것은 변화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아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꽃필 수 있도록,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천상의 모든 성인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천주교 서울대교구 /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